

정부,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안정 총력대응

늦은 추석 과실류 크기 증가 등 생육 회복, 국내 축산물 공급여건 개선...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평년대비 많을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8월 소비 지출가치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인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 품목별 생육관리 등을 통하여 안정세를 유지하였지만, R/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전년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소비자지출가치는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했고,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급변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하였다. 채소류 중 배추는 8월 하순 고온 및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5.5천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함에 따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배추 소비자 가격은 8월 중순 6.923원/포기 → 8월 하순 6.607원(전년비 7.4%↓, 평년비 1.3%↑)이다. 그 외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생산 증

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육도 양호하여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중 사과,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 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졌으나, 과실 크기 증가 등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늦은 추서에 맞춘 농가의 출하 의향도 높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수확 전까지 기상급변에 대비한 작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기 출하 전망(KREI)은 사과 54.2천톤(전년 50.9천톤 6.5%↑, 평년 41.3천톤 31.2%↑), 배 42.5천톤(전년 39.6천톤 7.2%↑, 평년 40.6천톤

4.8%↑)에상된다. 쌀은 협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비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9월말까지 쌀로 가공하여 전량 시중에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 할인 행사(8.1~)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상승했다. 미국 돼지 도매가격(7월)은 2024년 2.20달러/kg → 2025년 2.51달러/kg(전년비 14.0%↑)이다. /오상근 기자

'감전사고 예방' ... 한국전기 안전공사 30일까지 특별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도로공사 현장과 양식장 야생동물 피치용 전기물타리 시설 등 37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벌초에 나섰던 60대가 전기물타리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났고, 이에 앞서 도로공사 현장과 양식장에서도 감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최근 감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화, 절연장갑 등 안전장구 미착용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미설치 △수중모터 외함 미접지 △비규격전선 사용 △임의의 시공 등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지역별로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확인된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임의·불법 시공됐거나, 식별이 어려운 전기물타리는 지자체 이장 단협의회를 통해 위험성을 홍보하고 임의·불법 시설물 신고제도(☎1588-7500)를 활용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사 남회영 사장은 "도로공사 현장이나 양어장 등 전기안전 취약시설에 전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사회관계망(SNS),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민주당,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 개최

통상 관련 현안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청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진에 정책위의장 △김원익 산자위 간사 △권철승 중기특위 위원장 △권형열 대변인 △김동아 산자위 위원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부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이 자리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과 업



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당대표가 되면 대기업을 먼저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청대 당대표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를 우선해 찾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민생경제 악화로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00만명 넘게 폐업했다"며 현장 위기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마스카(MASGA)가 중소기업자재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면서도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자재 및 부품 업체가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한화에너지, 'ESS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화에너지가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 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4일 오전 전북 완주군 봉동읍 에너지저장연구센터에서 전기안전공사 남회영 사장과 한화에너지 이재규 대표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ESS 활용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이 △극한 환경에서의 ESS 안전기술과 ESS 기반 전력계통 안정화 기술인 그리드포밍(Grid-Forming·GFM) 공동 연구 △현장 중심의 국내외 기술기초 정립 △국내의 선진기술 파급과 기술정책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본 협약을 통해 해외 극한환경 ESS 실증 협력과 동시에 한국전기안

전공사 에너지저장연구센터의 실증설비(8MWh ESS, 1MW 태양광 440kW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GFM 기술을 공동 실증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ESS 안전기술과 미래사업의 핵심인 GFM의 에너지저장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양사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우리동네 청년CEO' 10일 첫방송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 JTV 전주방송 '즐거운 생활백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JTV 전주방송과 함께 지역 청년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 프로그램 '우리동네 청년CEO'를 오는 10일 오후 6시 50분부터 JTV 전주방송 '즐거운 생활백서' 코너에서 방송한다고 밝혔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문화, 관광 및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가를 말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청년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의 도전과 성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JTV 전주방송과 협업하여 특별 기획 코너 '우리동네 청년CEO'를 마련했다. 이 코너는 JTV 전주방송의 정보 매거진 프로그램 <즐거운 생활백서>에서 방영되며, 단순히 지역 명소나 맛집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판로 확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동네 청년CEO' 코너는 총 9주간 방영되며, 매주 한 명의 청년 CEO가 출연해 창업 계기,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 극복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청년사업가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공감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우리동네 청년CEO'는 지역의 대표 상품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CEO를 집중 조명하며,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세희 청장은 "지역소멸 위기 시대에 이번 방송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와 같은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등장하여 지역생권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농·건설기계 기업,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

인도네시아 수출상담회, 768만 달러·MOU 체결 현지 진출 가속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건설기계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찾아기는 수출상담회'에서 총 768만 달러(한화 약 106억원) 규모의 상담 성과와 5건의 MOU(97만 달러 규모) 체결 성과를 거두며,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Sutasma 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도내 6개 기업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주요 바이어들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찾아기는 수출상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농·건설기계기업 수출연계형 글로벌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바이어 매칭, 상담장 제공, 통역 지원 등 기업의 실질적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상담회에는 도내 농·건설기계 기업 6개사가 참여했으며, 현지 바이어 16개사와 1:1 수출상



담을 진행했다. 상담에서는 발작물 기계, 조사료 생산기계, 수확기 등 다양한 제품이 소개되었으며, 현지 농업 환경에 적합한 제품 경쟁력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며 향후 계약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테크노파크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도내 농·건설기계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앞으로도 상담회뿐 아니라 해외 전시회, 기술 교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